

# 시사 뉴스저널

## NEWS JOURNAL

2015. 1  
January

### Government News

한-베트남FTA 타결...15번째 FTA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  
'신뢰구축과 행복구현'

### Special Interview

(주)하나 서재원 대표  
'늘 처음처럼'  
기부 천사...빈자의 등불!

### Power Interview

돈 되는 사건보다  
생계형 사건에 연민하는  
변호인 강윤경

### Floral Art

한국화예디자인학회  
만재(晩齋) 고하수 명예회장  
"꽃꽃이는 '미(美) 이전의 미(美),  
'기교(技巧) 이전의 기교(技巧)' 이다"

### Artist

이기정 도자조형작가  
새로운 도예문화  
지평을 열다

## COVER STORY

환자가 주인!  
"환자를 위한 세계적인  
노인요양병원을 위하여!"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료법인 참여원의료재단)  
김옥희 이사장

국제갤러리 2관에서 1월 2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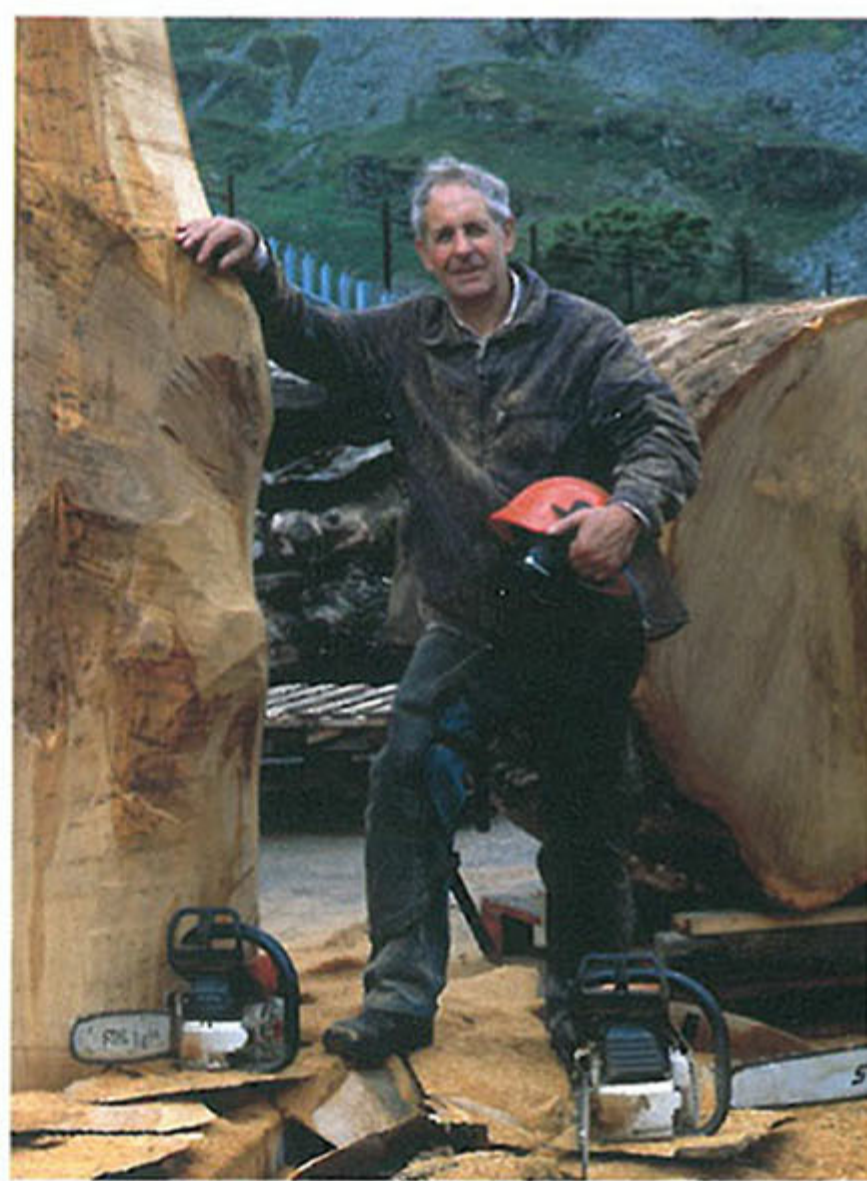
#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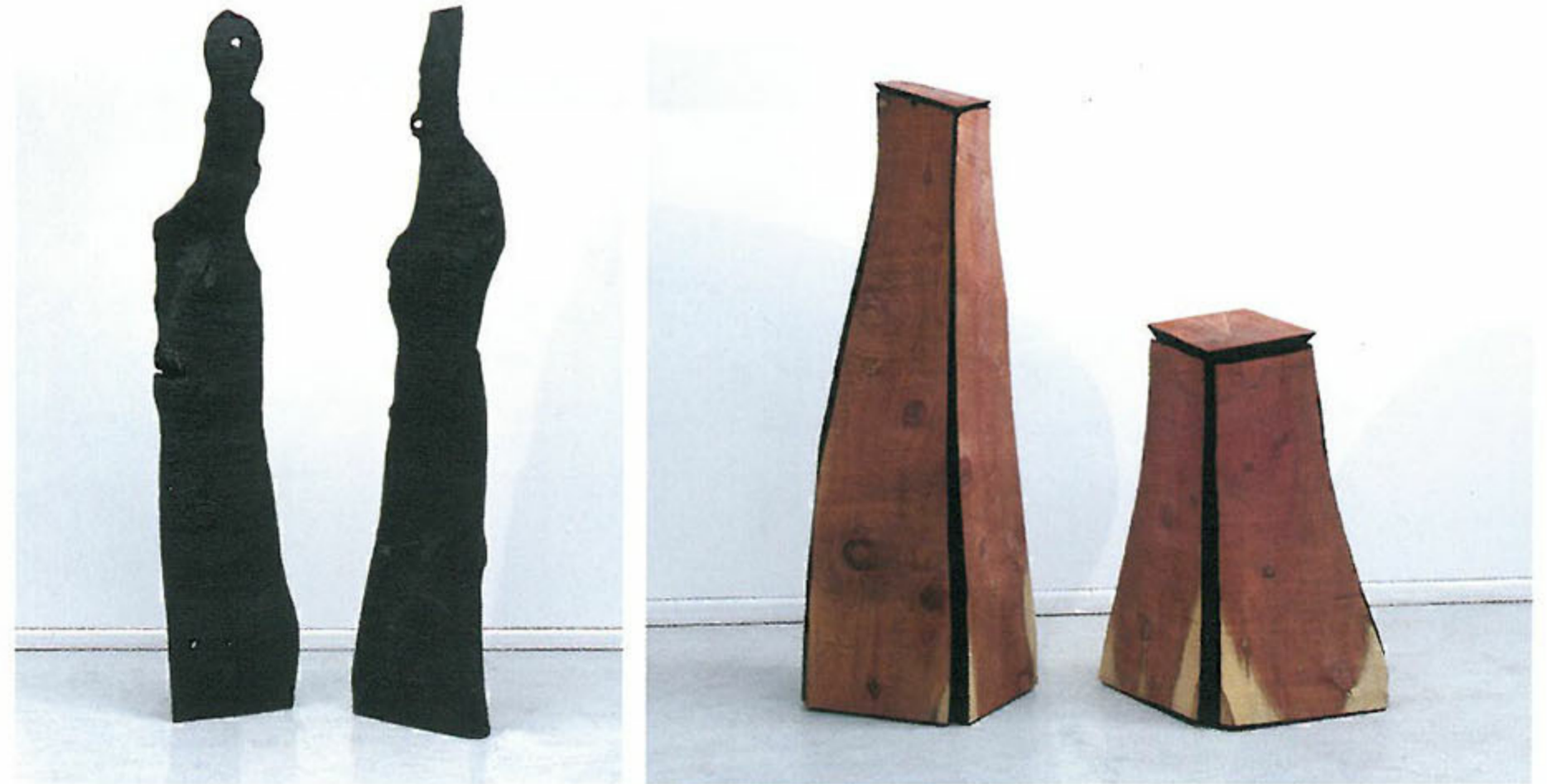
“나무의 수명주기는 인간의 수명주기를 닮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장하고 호흡하며,  
계절들을 지나며 깨어있거나 잠을 잔다.  
나무들은 자신들의 형태를 통해  
시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21세기 현존하는 대표적인 조각가

## David Nash 전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는 21세기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07년 국제갤러리 전시 이후 국내에서는 두 번째 전시이며, 국제갤러리 2관 (K2)전시장에서 조각과 드로잉을 주요로 한 작업들로 구성되어있다.

“나무의 수명주기는 인간의 수명주기를 닮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장하고 호흡하며, 계절들을 지나며 깨어있거나 잠을 잔다. 나무들은 자신들의 형태를 통해 시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 데이비드내쉬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는 자연에 대한 윤리적 접근 태도와 야생에서 발견한 나무들에 정교하게 형태를 부여한 심미적인 오브제 작업들로 잘 알려져 있다. 내쉬의 야생의 거친 표면을 그대로 활용한 서정적인 조각의 진가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가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의 작업에 있어 환경론적 관점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그의 작업 초기부터, 내쉬는 자신이 선택한 재료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그는 오직 기후나 질병에 따른 이유로 쓰러진 나무만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살아있는 재료로서의 나무와의 관계는 나무의 형태에 대한 그의 예리한 감수성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잘 알려진 그의 대표작들은 본래적인 성질에 따라 자연적 요소들에 의해 형태가 이루어진 것들이다.

내쉬는 모든 자신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날씨에 따른 목재의 균열, 나뭇결의 다양한 밀도 및 수명 주기를 표현하는 나이트 등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시간-이야기에 대응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강력한 상징적 울림을 담고 있는 거대한 작품들을 창조해낸다. 작가는 조각 기술의 정확한 어휘들을 사용하여 기념비적이고 친숙한 작업을 만들어 냈고 동시에 쉽게 분류되지 않는 도상적 모양들과 추상적 형태들을 탐구한다. 그의 재료에 대한 감수성은 모든 작품들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적인 관점 및 그가 언급한 “...배워야만 얻어지는 감각들 곧, 균형, 운동, 진리와 시간에 대한 감각”이라고 묘사한 것을 강조한다.

이번 국제 갤러리 전시에서 내쉬는 크기, 균형 및 형식적 정교함과 표면처리에 관한 그의 고유한 접근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평면 및 입체 양면 모두에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 외에도 브론즈를 이용한 신작들과 종이 작업들도 포함된다. 주요한 내쉬 조각의 특성들 중 하나는 나무 표면의 드라마틱한 절개방식의 사용이다. 이는 인위적인 패턴 및 시간의 형언할 수 없는 표면을 연상시키는 조각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을 그을리기 위한 불길의 사용에서 보듯, 내쉬는 형태와 표면처리를 성공적으로 통합시켜 인위적이지만 자연스러운 작품을





창조하고 있다. 시간에 따른 재료의 진화에 대한 내쉬의 관심은 그로 하여금 어떤 면으로 는 형태를 만드는 자연의 변형적 힘을 모방하는 브론즈 주조, 즉 액체금속과정을 통해 완성된 신작들로 이끌었다. “토르소(Torso)”나 “깊은 빨간색 기둥(Deep Red Column)”같은 작품들은 대규모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목재의 감각적 특질과 표면의 탁월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코르크 돔(Cork Dome)”과 “붉고 어두운 돔(Red and Black Dome)”에서 보듯 개별 조각들을 그룹으로 모으는 전략을 발전시켰다. 이들에게 서로 관계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는 형태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오브제와 제작자 사이의 심오한 관계를 반영하는 뚜렷한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쉬는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40여 개의 조각작품 외에도 크게 둘로 나뉘는 종이 작업들도 선보인다. 먼저 그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밀도 있는 안료 층들로 덮인 종이를 불에 그을린 나무로 만든 액자에 끼운 세 개의 삼면화를 만들었다. 다른 일련의 종이 작업들에서 내쉬는 참나무를 그렸는데, 이 드로잉들은 참나무의 자연스런 형태를 포착할 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나무로 만든 그의 조각들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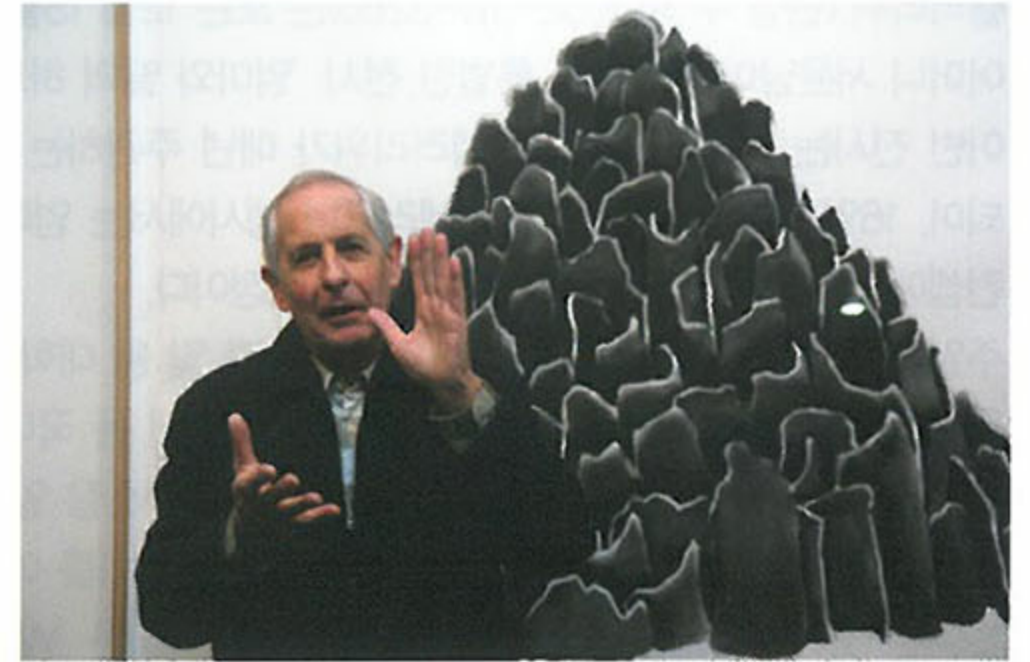
이 놀라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작가의 전 생애에 걸친 자연에 대한 헌신과 가공되지 않은 재료의 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는 데이비드 내쉬의 이 강렬한 전시는 작가의 주요 작품들과 그가 동시대 조각에 미친 커다란 기여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내쉬는 1963년부터 1967년까지 킹스턴 예술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첼시 미술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첫 개인전은 1973년 요크의 퀸 엘리자베스 홀과 웨일즈의 오리엘에서 가졌다. 이후 영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개인 전들을 선보였으며 1980년 뉴욕의 엘리스마이어 갤러리와 베니스의 카발리노 갤러리에

서의 개인전을 통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

주요 전시 이력으로는 1970년 이후 1975년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의 “조각의 조건 (The Condition of Sculpture)” 전, 198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미국의 시선에서 본 동시대의 영국 미술 (British Art Now: An American Perspective)” 전과 이 전시의 투어, 1982년 도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오늘날 영국 미술의 면모 (Aspects of British Art Today)” 전 등이 있으며 이외 수많은 주요 국제적인 그룹전에 참여했다.

근래 내쉬의 개인전으로는 2004년 테이트 갤러리 세인트 아이브의 “추상 조각 만들기와 설치하기 1978 · 2004 (Making and Placing Abstract Sculpture 1978-2004)” 전, 2008년 만하임 미술관의 “기념비적조각(Monumental Sculpture)” 전, 2010년과 2012년 런던 애널리주다 갤러리에서 두 차례의 개인전,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영국 웨이크필드 요크셔 조각공원에서의 개인전,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전역을 투어한 영국 서리큐가든에서의 주요 개인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내쉬는 1999년 왕립 학술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뉴캐슬에 있는 노섬브리아 대학의 연구원으로 임명되고, 킹스턴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바 있다. 그의 작품 “정사각형, 구, 피라미드 (Cube, Sphere, Pyramid)”는 2000년 영국 시민을 대표하는 찬트리 유산으로 소장 되었으며 2004년 예술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 4등 훈장을 수훈하였다. 현재 내쉬는 영국 북웨일즈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

Contact: PR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